데스크 시각

'엄마와 집에서 100일 밥먹기'

김미은
편집국 부국장·여론매체부장

"개나리꽃도 모르던 내가 어느날/ 서울 왔다가 기차 타고 집으로 가는데/ 노란 꽃이 창문으로 보인은대 그 꽃이/ 개나리라고 같이 있던 사람이 말했다/ 그때 알았다/ 꽃이름도 모르는 사람이 바로 나였다."

잡지 '샘터'를 읽다 눈앞이 흐려졌다. 삐뚤빼뚤 손글씨로 써내려간 시는 푸른어머니학교에서 뒤늦게 한글을 배우는 어머니의 작품. 그녀가 이름을 몰랐던 꽃이 작약이라든가, 히아신스라든가 조금은 어려운 이름의 꽃이었다면 마음이 덜 아팠을까. 이 세상에서 가장 흔한, 아이들도 동요로 부르는, 그래서 누구나 다 아는 개나리의 이름도 모른 채 바쁘게 살아왔을 그녀의 한평생이 틀린 맞춤법 사이로 그려졌다. 이제 개나리를 보면 '봄이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이 시가 먼저 떠오를지도 모르겠다.

개나리 꽃이름과 가수 임영웅

얼마 전 모임에서 전해들은 사연도 마음에 남는다. '미스터 트롯'을 통해 임영웅을 알게 된 80대 후반 노모의 소원은 꼭 한번 콘서트에 가보는 것이다. 가족들은 모두 티켓팅에 참전해 그 어렵다는 콘서트 티켓을 확보해 어머니의 소원을 풀어드렸다. 행복해하는 어머니를 보고 가족들은 또 하나의 이벤트를 준비했다. 어머니 생신날 각자가 임영웅의 노래를 준비해 독창, 합창으로 부르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 것이다. 이야기를 듣고 머리가 하얀 아들이 늙은 부모 앞에서 색동옷 입고 춤췄다는 고사성어가 떠올랐다.

언젠가 임영웅 콘서트가 막 끝난 공연장 앞을 지나다 만난 풍경도 오버랩됐다. 임영웅 팬을 상징하는 하늘색 셔츠를 입고 형광 머리띠를 한 채 쏟아져 나오던 수천명의 사람들 사이에 특히 나이 많은 어머니들의 모습이 눈길을 끌었다. 상기된 얼굴로 노래를 흥얼거리며 지나가는 그들을 보고 사는 데 바빠 앞만 보고 달리느라 한번도 해보지 못한 경험들 이제라도 많이들 하시라 속으로 응원했다.

최근 출간된 법정스님의 '진짜 나를 찾아라'에 등장하는 1996년도 강연 '수많은 생을 두고 쌓은 인연'에는 이런 대목이 나온다. "송광사에서 조카로부터 어머니가 돌아가셨다는 전보를 받고 '아, 이제 내 생명의 뿌리가 꺾였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다. 어머니들은 생명의 뿌리이고, 어머니는 생명의 시작이자 완성이다."

어린이날, 어버이날이 있는 가정의 달이어서인지 왠지 이런 이야기들이 더 마음에 다가왔다. '무슨 날'이나 되어서야 한번씩 이런 생각을 하는 게 부끄럽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날이 있어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 같다.

전철로 출퇴근하는 터라 이동 중에 많은 노인들을 만난다. 모두 누군가의 아들, 딸이었고 지금은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들이다. 언제부턴가 우리 사회에서 노인들은 주변부로 밀려나고 있다. 어떤 부류는 노인들에게 청년들의 앞길을 가로막는 사람들이라는 딱지를 붙인다.

얼마 전 광주가톨릭대학교 평생교육원에 들렀다 '대한민국-교황청 수교 60주년 기념전'을 관람했다. 가톨릭 신자가 아니어도 흥미로운 전시였는데 특히 버튼을 누르면 프란치스코 교황의 말씀이 적힌 종이가 나오는 코너가 인상적이었다.

'우리는 자기 자신에게는 관대하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관대하지 않습니다', '불의와 폭력으로 인한 고통 앞에서는 중립을 지킬 수 없습니다' 등 새길만한 글귀들이 많았다. 그 중에서도 '노인들은 우리 사회의 보물입니다(The elderly are a treasure for our society)'라는 글귀가 마음에 와 닿았다. 개나리 꽃이름도 모른 채 평생을 열심히 살아온 이 시대 모든 부모님들에게 전하는 찬사 같았기 때문이다.

교황 '노인들은 우리 사회 보물'

최근 식사 자리에서 듣고 감동했던 이야기 하나. 경치 좋은 곳에 자리한 유명 음식점에 나이 든 엄마를 모시고 간 딸은 맛있다며 좋아하는 엄마에게 "우리 내년에도 꼭 와요"라고 말했다. 고개를 끄덕이던 엄마가 나지막이 답했다. "응 그러자. 그런데 내년에도 올 수 있을까." 섣불리 '다음'을 기약하지 못하는 이의 마음을 알아차리고 퍼뜩 정신이 든 딸은 가까운 곳에 살고 있는 엄마와 함께 할 이벤트를 구상했다. 이름하여 '엄마와 집에서 100일 밥 먹기'. 음식 만들기 좋아하는 남편과 서울에서 다니러온 아들이 할머니를 위해 차린 특별한 밥상 등 지금까지 스물 두 번의 식탁이 차려졌다. 시시콜콜 숱한 이야기가 오고 간 것은 또 다른 즐거움이었다.

부모님과 함께 할 '무언가'를 궁리해 보는 것, 우리 모두가 항상 마음에 담아두어야 할 일일지도 모른다.

은펜칼럼

수은 강항 선생과 한복

강대석
시인·수은 강항기념사업회 이사

지난 17일 광주전통문화관에서 수은 강항선생을 기리기 위한 '강항 문화제'의 부대행사로 'K-선비 한복 선발대회'의 예선대회가 열렸다. 올해로 다섯 번째 열리는 행사지만 이 행사를 처음 접하는 분들은 강항선생과 'K-선비 한복 선발대회'가 전혀 매치가 안 된다며 다소 의아하다는 얘기를 한다. 강항선생이 연예인도 아니고 한복과 무슨 연관이 있느냐는 것이다.

수은 강항선생은 1567(선조1)년 영광 불갑에서 태어나 별시문과에 급제한 후 형조좌랑을 지낸 분이다. 정유재란이 일어나자 남원성 전투에 군량미를 보급하던 중 남원성이 왜군에 함락되자 고향 영광으로 돌아와 전 군수 김상준과 함께 의병을 일으켰다. 그러나 전세(戰勢)가 여의치 않자 가족들과 함께 이순신 장군 휘하로 가려다 염산 앞바다에서 왜군에 붙잡혀 일본에서 2년 8개월간의 포로생활을 했다. 그 기간에 일본의 정세와 지형, 제도 등을 기록한 적중봉소(敵中封疎)를 비밀히 고국에 보내 전쟁을 돕고자 했으며, 왜승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게 유학을 전수하고 귀환 후에는 후학을 양성하며 저서 '간양록' 등을 남겼다.

수은 강항이 일본에서 지낸 행적은 조선통신사들의 기록에 잘 나타난다. 1607년 전후 첫 조선통신사로 일본에 다녀 온 정사 여우길의 동사록(실전 됨)과 부사 경섬(慶暹)이 쓴 해사록에 의하면 '강항은 포로가 된 지 4년(실제 2년 8개월) 동안 형체(形體)를 헐지 않고 의관(조선의 선비 한복)을 변하지 않은 채 조용히 방에 앉아 독서만 할 뿐 한 번도 왜인과 더불어 상대하여 웃는 적이 없었다. 이를 왜인들이 귀하게 여겨 공경하니 원근에 전하여 미담이 되었다. 본래 일본은 용(勇)과 무(武)만 숭상하며 인륜을 모르다가 절의를 지키는 모습을 보면 감탄하지 않은 자가 없이 칭송하니 인간본연의 천성을 알 수 있다'라고 기록했다.

조선통신사들에게 일본인들은 곧잘 "강 낭중은 지금 무슨 벼슬을 하고 있느냐?"고 궁금해 하며 "선생의 충의와 절개가 옛 사람들에 비해 조금도 부끄럽지 않았다"고 칭송하므로 돌아와 이를 기록으로 남긴 것이었다. 당시 일본에는 임진왜란 때 잡혀간 수많은 조선인들이 본분을 잃고 왜에 동화되어 가는 것을 흔히 볼 수 있었기에 강항의 의연한 태도가 왜인들로부터 더욱 미담이 되었을 것이다.

또 강항이 교토의 복견성으로 이송되어 그곳에서 만난 왜승 후지와라 세이카(藤原惺窩)에게 필담으로 사서오경과 함께 과거 절차, 춘추석전 등의 의례를 가르쳐주자 후지와라 세이카의 제자인 아카마츠 히로미치(赤松廣通)는 이에 심취하여 오례의서(五禮儀書)와 같은 유교 서적을 얻어 보고 자신이 관할하는 단마(但馬)의 사읍(私邑)에다 공자묘(孔子廟)를 세우고 우리나라의 제복과 제관을 본떠 입고 의례 익히기를 일삼았다. 후지와라 세이카 역시 심의(深衣·선비 한복)를 입고 도쿠가와 이에야스(德川家康) 앞에서 유학을 강론하기도 했다. 이로써 유학과 함께 우리나라의 제복과 심의가 일본에 전파된 계기가 된 것이었다.

다시 말하면 강항이 왜국 체류 시 고집했던 의관은 바로 조선의 선비들이 입던 선비 한복이며 또 유학을 전하면서 함께 전파된 제복과 심의 역시 조선의 선비들이 의례를 수행할 때 입는 선비 한복의 일종이란 것이다. 여기에서 착안하여 마련된 행사가 'K-선비 한복 선발대회'라면 수긍이 갈 것이다. 수은 강항선생을 상징적으로 알릴 수 있는 아이템을 찾다보니 여기에 이르렀을 것이란 생각이 든다.

따라서 선비 한복 선발대회는 상업적 패션 장려가 목적이 아닌 전통 선비 한복을 재현하고 수은 강항이 지키고자 했던 조선 선비의 자존심과 절의 정신을 구현하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강항 문화제' 본 행사는 매년 9월 20일 '강항의 날'을 기념하여 불갑산 상사화 축제 기간에 함께 열린다. 역사와 문화를 사랑하는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대한다.

기 고

시민과 함께 꿈꾸는 2030년의 광주 모습

김영근
광주시 혁신평가담당관

우리가 상상하는 2030년 광주의 모습은 어떤 것일까?

사람마다 추구하는 가치의 우선순위에 따라 다양한 미래를 그려 볼 수 있을 것이다. 편리함을 우선한다면 가까운 곳에서 문화와 여가생활을 즐길 수 있는 복합쇼핑몰이 들어선 모습이라거나 어디든 쉽게 이동할 수 있는 대중교통체계 또는 막힘없이 뚫려 있는 도로가 될 것이다.

청년의 경우에는 인공지능이나 미래차와 같은 최첨단 산업이 발전해 좋은 일자리의 기회가 많아진 모습일 것이다. 더불어 5·18 정신을 계승하는 나눔과 돌봄이 가득 찬 사회, 곳곳에 공원과 숲이 조성돼 편안함과 여가를 누릴 수 있는 도시 등 다양한 모습들이 그려진다.

그러한 광주의 미래를 행정에서도 그려 보고 있다. 광주시는 '2030년 광주 대전환의 해'를 위한 설계와 실행을 선언했다. ▲복합쇼핑몰 3종세트와 함께 준비 중인 도시 이용인구 3천만시대 ▲미래차 산업을 이끌 '미래차 소·부·장 특화단지' ▲광주와 대구를 1시간대로 잇는 '달빛철도' ▲시민의 발이 되어줄 '도시철도2호선' ▲정부보다 한발 앞선 '온실가스 45% 감축' 등으로 광주의 2030년을 그려 가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노력들도 시민의 관심과 참여가 있어야만 실현 가능한 목표일 것이다. 예측 불가능하고 불확실성이 높은 요즘 같은 현실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주목받고 있는 이유다. 물론 전문가의 공신력 있는 견해 못지않게 이해당사자인 시민의 참여와 의견도 중요하다. 특히 시민이 직접 시정에 참여해 정책을 평가하고 심사까지 하는 것은 더욱 중요한 일일 것이다. 정책의 주인공은 바로 시민이기 때문이다. 이 도시를 살아가는 이는 행정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닌 광주시민인 것이다.

그래서 행정 주도로 이뤄지는 일방적인 정책 결정이 아닌, 시민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공론 장이 필요한 것은 이 때문일 것이다. 그리고 '정책평가박람회'가 그러한 공론 장의 창구 역할로 한 축을 맡고 있다.

그간 광주시에서는 매년 연말 시민 대상 일회성 설문조사와 전문가, 공무원 중심의 평가로 그 해의 우수 정책을 선정해왔다. 그러나 변화와 혁신을 화두로 시작한 민선 8기에서는 이런 평가방식을 바꿔 대상 선정부터 심사까지 연중 지속적인 시민 중심의 평가를 위해 정책평가박람회를 도입했다.

지난해 처음 시행한 정책평가박람회에서는 광주시가 1년 동안 추진해 온 정책 중 대표적인 15개 정책의 성과를 시민에게 최종 보고하고 심사받는 행사도 열렸다. 온라인 시민플랫폼 '광주온' 설문조사, 공무원 설문조사, 시민의날 현장평가, 통장, 주민자치위원 등 지역사회리더 평가를 거쳐 혹독하게 살아남은 정책을 최종 평가하는 '올해를 빛낸 스타정책 경진대회'가 그것이다.

광주시는 지난 해 광주 미래 변화의 밑그림을 완성했고, 올해는 이 밑그림에 다채로운 색을 입혀 더 좋은 광주를 만들어 가는 데 집중하고 있다. 그 과정에 다양한 시민의 목소리를 듣고 정책에 반영할 수 있도록 올해에도 정책평가박람회를 연중 지속해서 운영하고 있다. 지난 4월 5개 분야 52개 정책을 대상으로 광주온 설문조사와 시·구 공무원 설문조사를 진행했다.

그 결과 ▲대한민국 NO 1. 광주 복합쇼핑몰 3종 ▲새롭게 태어난 24개 공원 ▲365일 운영하는 공공 심야 어린이병원 ▲걷고 싶은 도시 광주 등 올해 기대되는 30개 정책을 선정했다. 이 정책들을 대상으로 시민의 날 현장평가를 시작해 경제인평가, 지역사회리더평가를 거쳐 스타정책 경진대회까지 추진할 예정이다.

오는 25일 광주 시민의 날에는 시청에서 '더 살기, 더 즐기기, 더 기업하기 좋은 광주를 위해 시민 여러분의 색을 입혀주세요'라는 주제로 현장평가를 추진한다. 나의 행복을 위하고 나아가 2030 광주 대전환을 위해 이해당사자인 시민이 입히는 다채로운 색을 확인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社說

'5·18 성범죄', 치유 등 후속조치 따라야

1980년 5월 신군부 계엄군의 잔혹한 만행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진압 과정에서 무고한 시민들을 살해하고 헬기 사격을 한 사실은 국가 권력에 의한 폭력으로 역사에 기록됐다. 하지만 여성들을 상대로 한 성폭력은 가장 최근에서야 전말이 드러나고 국가 폭력으로 인정받은 분야다.

5·18 관련 피해 가운데 성폭력은 1980년 이후 38년만에 처음으로 공론화 됐다. 피해자들의 진술이 쏟아지면서 2018년 6월 문재인 정부가 처음으로 공동 조사단을 꾸려 조사에 나섰고 그해 9월에 출범한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5·18 조사위)가 조사를 이어 받았다. 5년여 조사끝에 5·18 조사위가 최근 공개한 성폭력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52건의 사건 가운데 최종 심의에 오른 19건 중 최종 16건을 계엄군 등에 의한 성폭력으로 결정했다.

조사보고서는 국가 권력이 저지른 성폭력을 최초로 규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다만 보수진영측 추천 위원들이 "국가폭력이란 용어는 부적합하다"는 소수 의견을 낸 점은 민주주의의 주춧돌을 놓은 5·18을 부정하려는 처사로 씁쓸한 뒷맛을 남겼다. 5·18 조사위가 공식 활동을 종료한 상황에서 더 중요한 점은 성폭력 피해자에 대한 치유와 명예회복 등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그제 국회에서 여성 전문가들이 참여한 가운데 '5·18과 성폭력, 현안과 향후 과제'라는 주제의 정책토론회를 마련한 것도 후속조치의 필요성을 절감했기 때문이다.

피해자들은 국가 권력에 의해 성폭력을 당했으면서도 오히려 반세기 가까이 죄인처럼 살아야 했다. 조사대상 52건 가운데 33건은 피해자가 진술을 거부하거나 정신질환 발병 등으로 진술이 불가한 상태였다는 것이 공론화가 힘든 성폭력 피해의 특수성을 말해준다. 이제 정부가 할 일은 5·18 성폭력 피해자들이 충분히 치유받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다.

'15만t 시장 격리'로 쌀 가격 폭락 막아야

80kg 들이 산지 쌀값이 18만원 대까지 떨어지면서 전남도가 추가 하락을 막기 위해 정부 차원의 시장 격리를 건의하고 나섰다. 정부가 2023년 수확기 이후 총 5차례의 수급안정 대책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2월 식량원조용 10만t을 매입했는데도 쌀값 하락이 멈추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엊그제 전남도는 "지난 17일 2023년산 쌀값 하락 대책 마련을 위해 유관기관과의 대책회의를 열어 정부에 시장격리 15만t을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날 쌀값 안정을 위한 유관기관 대책회의에는 농협 미곡종합처리장(RPC), 대한곡물협회 전남지회, 농협 전남지역본부, 시·군 등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RPC 관계자는 "정부가 약속한 20만원 쌀값은 보장되지 않고 있다"며 "정부의 15만t 이상 시장격리가 5월 말까지 없을 경우 미곡종합처리장은 자체 보유한 재고 물량을 6월부터 저가에 방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산지 쌀값은 5월 5일 기준 19만원(80kg)으로 지난해 10월 이후 하락세다. 5월 15일 기준 쌀값은 추가 하락해 18만원대로 떨어졌다.

문제는 정부의 쌀값 안정 대책이 별 소용이 없다는 점이다. 4월 말 기준 전남지역 농협 쌀 재고량은 전년보다 80%가 증가한 18만t으로, 월별 쌀 판매량과 올 수확기 전까지 재고를 고려하면 신곡 가격 역시 불안할 수밖에 없다.

정부의 쌀값 안정대책이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 이유는 쌀값 정책의 실패가 크다. 정책결정을 늦게 하고 부정확한 관측통계(생산량·소비량)로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쌀값 하락으로 인한 소득 감소는 고스란히 농민들의 몫이다. 정부는 정확한 통계조사를 통해 식량 원조 5만t 추가 매입과 일부 산지 재고 물량에 대한 조속한 시장 격리 등 고강도 쌀값 하락 방지 대책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無等鼓

5·18 개헌

5·18 민주화운동 44주년을 맞아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한 기대가 커지고 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제22대 국회에서 다수당을 차지한 데다, 여당인 국민의힘도 힘을 싣고 있어서다. 하지만 여전히 우려되는 부분은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5·18 포함 포괄적 개헌'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원포인트 개헌'을 통해서라도 추진하겠다고 맞서는 등 여전히 시각차가 크다는 점이다. 이 때문에 제22대 국회에서도 또 다시 5월 정신이 여야의 '정쟁 도구'로만 사용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헌법 전문은 대한민국 헌법의 조문 앞에 있는 공포문이다. 전문에는 3·1운동의 독립 정신과 4·19 민주 이념 등 헌법 제정의 역사적 과정, 목적 등을 규정하고 있다. 헌법 전문은 지난 1948년의 제헌 헌법 전문과 그 이후 아홉 차례에 걸쳐 역사적 사건 등을 담은 내용이 추가되거나 삭제됐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 문제는 정치권에서 1987년 6월 항쟁 이후 논의가 진행된 9차 개헌 때부터 제기됐으나 여야의 무관심 속에 37년째 답보 상태다.

5월 정신의 헌법 전문 수록은 문재인 전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했지만 여야의 대립 속에 7년 동안 제자리걸음만 했다. 제21대 국회에서도 민주당이 다수당이었지만 끝내 실현되지 못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번 44주년 기념식에 참석해 "오월의 정신이 찬란하게 빛나는 새로운 미래를 위해 저와 정부는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정작 자신의 대선 공약이었던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언급하지 않아 지역민들을 실망시켰다.

최근 광주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이 5월 정신 헌법 전문 수록을 위한 토론회를 주최해놓고 무더기로 불참해 비난을 받기도 했다. 제22대 국회의원 임기가 오는 30일부터 시작된다. 대한민국의 민주화를 이끌어 온 오월 정신이 제22대 국회에서 개헌을 통해 빛을 봤으면 하는 바람이다. 37년 동안의 답보상태에 종지부를 찍는 데 지역 국회의원들의 역할이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기다.

/최권일 정치총괄본부장 cki@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회장·발행인 金汝松 논설실장 張必洙 편집총괄국장 崔宰豪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 1(일간)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24

대표전화 222-8111 / 220-0551〈지사 지국(구독 신청 배달 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대표 FAX	222-4918〉				
편집부	220-0649	문화부	220-0661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정치부	220-0652	예향부	220-0692	기획관리국	227-9600	업무국	220-0551
					〈FAX 222-0195〉		〈FAX 222-0195〉
경제부	220-0663	사진부	220-0693	디자인실	220-0536	서울지사	02-773-9331
사회부	220-0664	체육부	220-0697				〈FAX 02-773-9335〉
전남본부	220-0680						

※구독료 월정 15,000원 1부 8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